

정자 제공자에 '아버지 권리' 인정

호주 최초로 정자 제공자의 부권(父權)을 인정하는 최종심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 레일리아 인터넷판에 따르면, 호주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관계(레즈비언)인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서 딸을 낳을 수 있게 한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12년 전 로버트 매슨(가명)은 오랜 지기인 수전 파슨스(가명)에게 정자를 제공했고 인공수정을 통해 2007년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매슨은 '딸'은 물론 생모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파슨스와 동성 파트너가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 이주를 계획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매슨은 자신의 부권을 주장하며 '딸'이 호주에 떠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노출 심한 옷 때문에 의사면허 박탈

미얀마의 모델 겸 의사가 페이스북에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19일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모델 겸 의사이던 양 음웨 산(29)은 이달 초 미얀마 의료협회로부터 의사면허 박탈 통지서를 받았다. 미얀마 문화와 전통에 반(反)하는 옷차림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영복·속옷 차림 사진과 미국 모델을 흉내 낸 얇은 의상을 입은 사진 등을 자주 올렸는데 의료협회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애초 의료협회는 올 1월 '야한 옷차림 사진'에 대해 경고하며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들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당시 음웨 산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메릴린 먼로상' 사라져 경찰 수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메릴린 먼로 동상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이를 '2019 메릴린 도난사건'으로 명명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라진 메릴린 먼로 상은 영화계에 큰 지위를 남긴 여배우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할리우드의 여성들 기념탑' 상단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기념탑은 1930년대를 풍미한 미국 여배우인 매 웨스트와 아프리카계 여배우인 도로시 댄드리지, 중국계 에나 메이, 멕시코 출신 돌로레스 델 리오까지 4명의 여배우 동상이 각각 하나의 기둥으로 탑 하단부를 받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매체, 미·중 정상 통화 보도...갈등해결 기대감

“G20서 회동...중기업에 공평 대우 촉구” “미국 패권주의 굴복 안해” 대미 비난도

무역전쟁으로 접매한 대립 중인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내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양국 갈등 해결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내용을 1면에 보도하면서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 기간 회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중미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기 원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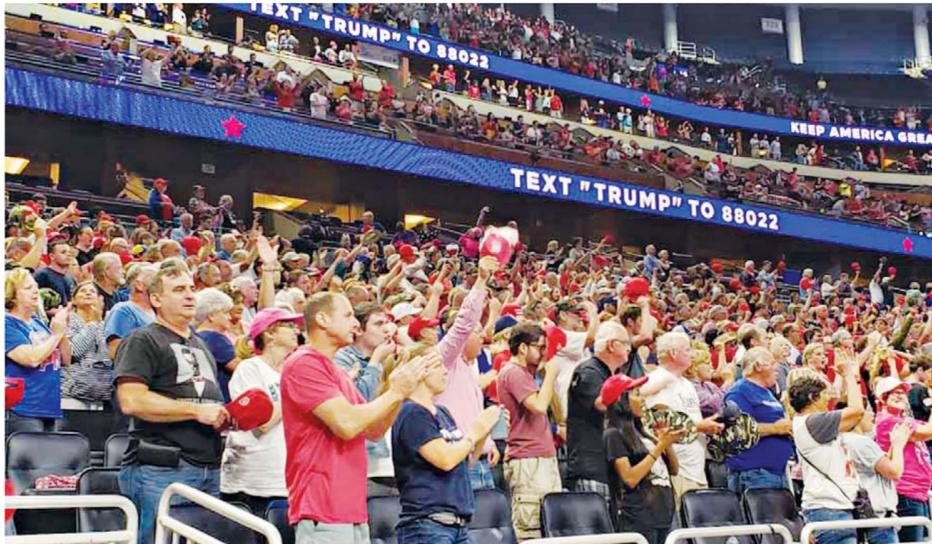
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막 시작됐고, 미국 경제가 매우 취약해진 데 대해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대미 공세를 이어갔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1면 논평을 통해 “중미관계 악화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양국관계를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이런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미국 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미국은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가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들고 세계 다국화와 경제 세계화라는 대세와 점점 더 충돌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도발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패권주의는 결국 막힐 것이고,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재선 도전 출정식이 열린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플로리다서 재선도전 공식선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키겠다” 지지 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플로리다주(州)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출정식을 갖고 4년 전 첫 대선 도전 당시 내 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거론, “이를 이뤄냈다”면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키겠다고 재선 고지 등정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에 앞서 연단에 오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4년 더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재임 성과를 강조하며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2라운드를 위한 시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선에서 초박

빙의 승부수가 펼쳐지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첫 깃발을 꽂고 재선 가도의 닳을 올렸다. 이로써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을 2020년 11월 3일 대선을 향한 16개월 여에 걸친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민주당도 오는 26~27일 이틀에 걸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20명의 후보들이 2개조로 나눠서 첫 TV토론을 갖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플로리다 쟁탈전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전선의 사활을 건 일전이 예고된다. /연합뉴스

日 ‘징용 소송’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

일본 정부가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공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위 개최에 응하려는 강한 요구를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

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달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18일(구성 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위자료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규정한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 연구팀 “폐경 늦으면 장수 가능성 높다”

폐경이 늦으면 장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보건대학의 해럴드 배 교수 연구팀이 장수 가족연구(Long Life Family Study), 프래밍햄 심장연구(Framingham Heart Study), 건강과 은퇴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등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대형 연구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헬스데이 뉴스와 사이언스 데일리가 18일 보도

했다.

늦은 폐경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DNA 수리, 면역기능 등 노화의 지연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노화가 지연된다는 것은 장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반면 조기 폐경과 관련된 변이 유전자들은 노화의 지연과 연관이 없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